

자
님의 사랑의 숨결이 머무는 자

Sabah, 말레이시아

Kota Kinabalu Malaysia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가정 기도편지 Vol 6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벌써 올해도 반년이 흘러 6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복음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동역자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01_설 명절 한가족예배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명절에도 역시 교회 성도님들이 친지요 가족이라 교회에서 함께 명절을 같이 보냅니다. 이날은 교회 어른신들이 양빠오(세뱃돈)를 준비하여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를 하는데 적은 돈이지만 나눠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을 서로 서로 누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명절 음식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상품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_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세명의 교역자가 함께 한 것에 비해 혼자 일주일일을 도맡아 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은혜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현지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마지막 날에는 다음세대 아이들이 함께 하며 은혜의 자리를 같이 빛내어 주었습니다.



3_2024년 말씀 사경회

교회의 규모는 작고 아직까지 재정상황도 넉넉하지 못하나 우리가 집중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믿기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는 것에 재정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하고 매년 한 번씩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영국 꿈이있는교회 이영주 목사님을 시작으로 올해는 한국 예수나무교회 홍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셨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4_2024년 상반기 성례식 (부활주일)

올해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상반기 성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5명의 세례, 1명 입교, 1명 학습, 총 7명이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례 받는 자녀로 인해 용기를 얻어 본인도 세례를 받기 위해 학습을 받은 성도님이 계셨는데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남전도회는 첫 헌금특송을 불렀으며, 맥반석과 삶은 계란을 넉넉히 준비해 주변 교민분들에게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_다음세대 봄맞이 행사

좁은 교민 사회 안에 아이들도 많지 않지만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은 더 극소수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기에 교회를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오는 다음세대 아이들을 위해 봄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돈까스까지 직접 만들어 먹이며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6_이하람 전도사 사임

23년 2월말 중고등부 담당으로 이하람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다시 한 번 본인의 분명한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목회가 아닌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기에 충분히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주었기에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고 기쁨으로 보내주었습니다.



7_가정의 달 테마 주일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을 시작으로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까지 함께 대상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어버이주일에는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케익을 커팅하고 축복기도를 해드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해마다 가족사진을 찍어드리며 주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_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1_ 사역에 관한 이야기

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며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은 한 해 동안 붙잡고 갈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였습니다. 그런 중에 주셨던 마음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이 심겨져,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 말씀 위에 복음으로 하나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가야 할 분명한 뜻대와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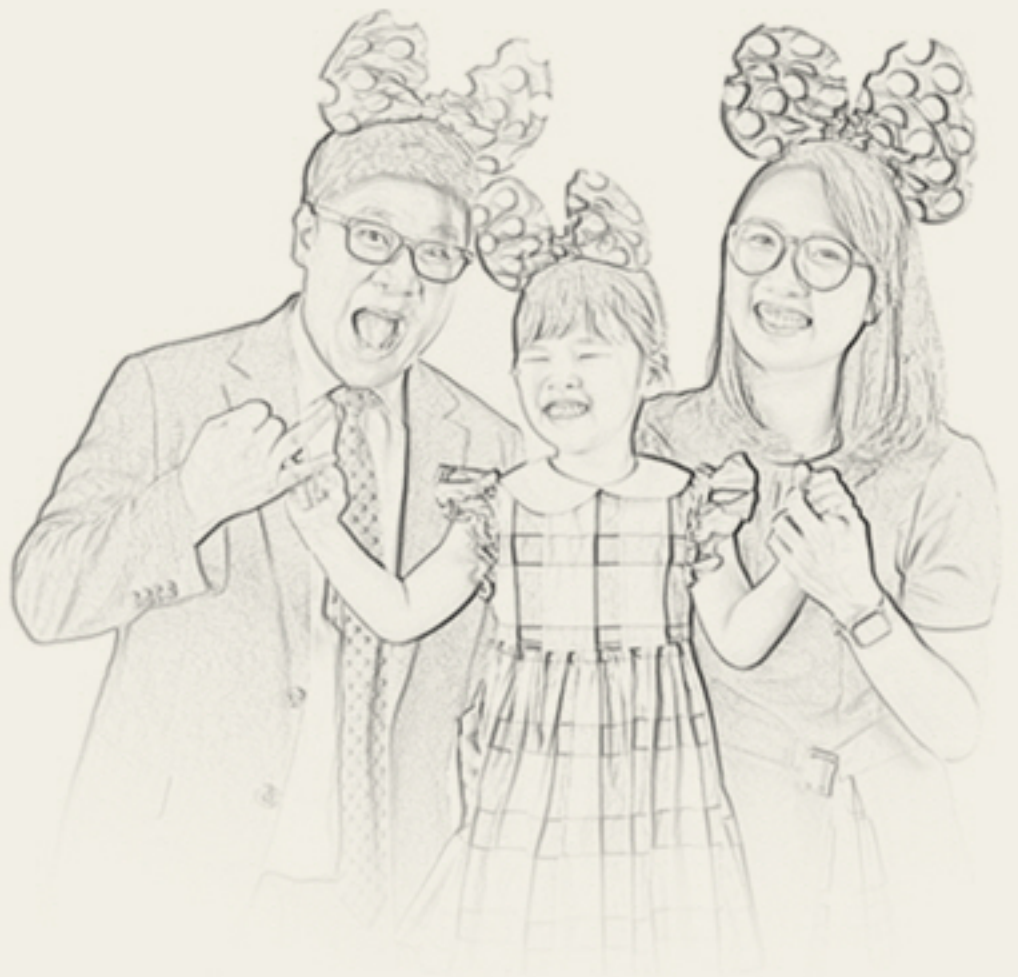
2_ 건강에 대한 이야기

건강이 곧 사역이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무더운 여름 나라라 체력적으로 지치기가 쉬운 곳이라 늘 긴장하며 건강을 챙기려고 애를 씁니다. 작년에 다친 아킬레스건은 아직도 근육 뭉침이 남아 있어 물리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내는 유산 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악한 병원시설로 인해 치료가 늘 쉽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하루 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3_차량에 관한 이야기

지난 번 기도편지에 차량을 위한 기도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교회 집사님과 함께 여기에 있는 모든 매장들을 돌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한 업체에서 정말 말도 안되게 외국인에게 7년 대출을 해주며 선수금은 기본 30%인데 20%만 받고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차량에 대한 금액을 매달 지출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 있지만 이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 귀한 발이 되어줄 차를 주신 주님께 또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 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기도
하나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둘

은혜 가운데 상반기를 달려온 만큼 하반기 사역들도 지치지 않고 주님 따라 묵묵히 나아가도록

기도
셋

영어와 말레이어를 잘 익혀서 한 해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정착하는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넷

교회 필요한 물품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질 수 있도록(각종 장비 및 의자교체)

기도
다섯

가족(수민, 민혜, 하린) 모두 강건하여 맡겨진 사역과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여섯

하린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합한 곳으로 잘 연결되어 진학할 수 있도록

사역교회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lovekkc.com) 파송단체 IGC

재정동역 카카오뱅크 3333-04-4001931 이수민

미션펀드 <https://go.missionfund.org/kkchurch>

E-mail 이수민 jlm6987@gmail.com

이민혜 mymh4860@gmail.com

카카오톡 이수민 jl6987 / 이민혜 mymh486

